

제7회 올키즈스터디 창작동시대회 '있다! 없다?' 수상작 안내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제7회 올키즈스터디 창작동시대회 '있다! 없다?' 공모작품 1282선
- 심사기간 : 2021년 6월 9일 ~ 6월 23일
- 심사자 : 박경장 문학평론가, 장세정 동시작가,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 심사기준 :
 - 진실성(남의 생각과 언어를 흉내 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는가)
 - 창의성(사물과 대상에 대한 관찰력과 상상력이 독창적이고 풍부한가)
 - 예술성(글의 짜임새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공모주제 : '내가 바라는 세상'에는 _____ (이/가) 있다! 없다?
*어린이가 바라는 세상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해주세요.

▣ 심사총평

K-동시

박경장 심사위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에는 1282편의 동시가 있다!’ 작년에 출품된 동시는 600여 편. 예년에 비해 4배나 늘어난 편수였지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에 두 배라니! 장세정 선생님과 반씩 나누어 읽는데 꼬박 일주일 걸렸답니다. 동시로 눈떠서 동시로 눈감은 한 주일이었어요. 울키즈 어린이들이 꿈꾼 동시와 동시 사이에는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없을까? 내가 여행한 동심꿈나라였답니다.

울키즈 어린이들이 동시로 꿈꾼 세상에는 ‘친구, 가족, 꽃, 봄, 모든 걸 대신해주는 로봇, 통일, 무지개, 숲, 평화, 사랑, 타임머신, 솜사탕, 거대한 과자, 도넛, 분홍사탕, 산들바람, 웃음, 게임, 하늘을 나는 자전거, 하늘 버스, 친절, 천사, 놀이공원, 깨끗한 지구, 용돈, 노래, 리듬, 돈가스, 우정, 네잎클로버, 딸기, 마음대로, 카멜레온, 희망, 달달한 초코, 돈, 캐릭터, 어벤저스, 소통, 마법, 땅속도시, 추억, 형, 외계인 . . . 등등’이 있고요.

울키즈 어린이들이 동시로 꿈꾼 세상에는 ‘죽음, 병, 바이러스, 코로나, 엄마 잔소리, 담배, 욕, 쓰레기, 마스크, 아픔, 고통, 눈물, 공부, 학교폭력, 학교, 거짓말, 치매, 중독, 숙제, 안 돼, 어른, 책, 죽음, 사춘기, 폭풍비듬, 늙음, 황사, 환경오염, 전쟁, 미운 말, 걱정, 악몽, 벌레, 스트레스, 비만, 왕따, 동생, 싸움. . . 등등’이 없어요.

정말이지 울키즈 어린이들이 동시로 꿈꾼 세상에는 ‘사심’은 없고 ‘동심’만 가득했습니다.

동심은 마음의 처음자리이고 동시는 시의 첫걸음인데요. 시(詩)는 언어(言)가 모셔진 사원(寺), 말(언어)의 처음자리입니다. 그래서 동자승을 보는 것 같은 동시를 마주할 땐 샘물을 마신 듯, 새벽 강에 발목을 담근 듯, 겨울 찬물로 세수를 한 듯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낀답니다. 이를테면 ‘궁금행 기차표를 끊어 책 돌레길 여행을 꿈꾸는,’ ‘한 순간이라도 핸드폰이 사라져 모두 폭 숙인 고개를 들고 내 얼굴 보기를 꿈꾸는,’ ‘귀신도 유령도 숨지 못하는 밤이 사라진 세상을 꿈꾸는,’ ‘투명한 칸막이 대신, 갤럭시 패드 대신, 생일날 장난감 대신, 텅 빈 일기장 대신 선생님과 친구와 짝꿍이 있는 열 살을 꿈꾸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치마, 짧은 바지, 롱스커트, 누가 나보고 너무 예뻐서 고백하는 거 아니야, 두근두근 마음 설레는,’ ‘반으로 쪼개진 우리나라를 딱 붙여줄 마음을 모집하는,’ ‘형과 또 싸워 엄마가 양심껏 맴매할 것을 가져오라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왔더니, 깜짝 놀라고 황당한 표정을 짓는 형과 엄마를 보고 뭔가 또 내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하는’ 동시(심)를 마주할 때 말이지요.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동시로 꾸 꿈들이 모이고 모여 차고 넘쳐 한류(Korean Wave)를 타고 세상으로 흐른다면 ‘K-동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구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동시가 모일까요. 노래로도 불러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면 ‘K-동요’도 되겠죠. 우리 함께 어깨동무하고 한 번 불러볼까요.

“나에겐 웃음이 있어요. 언제나 웃음이 넘쳐요. 웃어도 웃어도 웃음이 넘쳐요. 나에겐 웃음이 있어요.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저에게 배달된 641편의 시를 놓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런 뒤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조심스레 느껴 보았어요.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맞아, 그렇지” “그래, 나도 이 마음이야.” 하면서 맞장구를 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어른이라서 많이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대부분의 어린이가 학교, 공부, 잔소리, 코로나, 미세먼지,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부하고 학교 가는 일이 즐거워야 하는데 어린이를 움짱달짝 못하게 만든 것도, 코로나와 미세먼지와 쓰레기를 물려준 것도 어른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른이 미안해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걸 어린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해 주는 작품들도 있었거든요. 어떤 어린이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어떤 어린이는 발랄한 상상의 세계를 펼치고, 어떤 어린이는 자기 문제를 남과 다르게 생각해 보면서 헤쳐 나가려는 마음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어른으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면서, 어린이의 마음을 믿으면 다가올 미래도 문제없을 거라고요.

그럼 제가 눈여겨 본 작품들을 간단히 소개할게요.

속상하고 슬플 때 위로 받는 대상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달리기’라고 당당히 말하는 모습은 적극적이고 건강해 보였어요(「내 고마운 친구」).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세계 공용어는 ‘한국어’라고 선언하는 모습은 기상이 넘쳤고요(「우리가 바라는 세상에는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이다」). 되고 싶은 자신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감성은 섬세했어요(「내 머릿속 주인공」). 비록 우리 집에 정원이 없지만 동네 자연을 정원 삼는 발견은 긍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정원」). 문이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꿈꾸는 마음은 되새겨볼만한 귀한 마음이었답니다(「문이 없는 세계」). 하늘을 나는 기린과 야옹거리는 악어를 상상하는 마음엔 거칠 것이 없었고요(「상상의 동물」). 폐지 줍는 할머니를 보며 병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마음은 몽클했어요(「병이 없는 세상」). 손도 발도 없는 용기 걸어로 내가 걸어가야 한다는 깨달음은 고민해 본 사람만이 뺄 수 있는 깊고 절절한 고백이었지요(「내 친구 용기」).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어리다고 모르는 게 아니란 걸, 어리므로 더 잘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가 많았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시를 쓰면서 나와 둘레를 자주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시를 쓰면서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일 그 어려움과 실컷 뒹구는 일 이것은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작지만 진지한 마주보기를 통해 우리는 더 자유롭고 자기다운 사람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시를 가까이하고 쓰고 있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시의 길에서 언젠가 운명처럼 만나기로 해요. 그 때 서로를 알아보기로 해요. 어린이 친구들, 모두 아프지 말고 즐겁게 지내길 바라요.

대상후보작 최종심사 총평

박경장 선생님과 제가 최종심에 올린 작품은 「마음 모집」, 「내 친구 용기」, 「병이 없는 세상」, 「피곤」 이렇게 네 편이었어요.

「마음 모집」은

통일을 주제로 한 시 중에서 가장 진행이 매끄럽고 형식적으로도 완성도가 있는 시였어요. '마음이 쪼개'져서 '마음을 모집'한다는 구절이 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쪼개진 마음을 이어 붙일 구체적이면서도 진정성 있는 고민이 드러나지 않아 다소 관념적으로 느껴졌어요.

「내 친구 용기」는

용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표현이 눈에 띄었어요. 발과 손이 없는 용기에게 내가 걸어가야 하고, 내가 용기를 끌어 당겨야 한다는 깨달음은 시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지만 중간 중간 쓰인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이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앞으로 이 시를 쓴 어린이가 한 단어 한 단어 나만이 쓸 수 있는 단어를 고민하며 꾸준히 시를 쓴다면, 멋진 시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이 없는 세상」은

코로나를 주제로 병이 없는 세상을 표현한 시 가운데서, 가장 진정성이 느껴지는 시였어요. 막연하게 쓰지 않고 내가 아는 한 사람, 내가 느낀 바로 그 일을 두고 나의 바람을 나타냈어요. 표현은 조금 서투르도 쓴 사람의 마음과 읽는 마음이 서로 만나 '짙'한 느낌이 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곤」은

어린이의 시지만 모더니스트함도 느껴지고 20세기 초 문학 트렌드였던 권태로움도 느껴졌어요. 하고 싶은 말을 반복적인 어휘로 나타내어 자연스럽게 리듬을 만들고, 구성도 안정적이었어요. 가슴 속에 눌러 있던 감정을 배출하는 배설이 주는 시원함도 있었습니다.

네 편 중 어린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피곤」과 마음에 울림을 준 「병이 없는 세상」이 최종 대상 후보로 좁혀졌습니다. 두 작품 모두 장점이 뚜렷했기에 결정이 쉽지 않았지만, 배설의 느낌보다는 마음을 움직인 「병이 없는 세상」에 점수를 더 주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나눌 만한 좋은 시를 써준 수상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수상은 못했지만 정성을 다한 글과 그림을 보내준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해요. 글을 보고 읽는 내내 가슴이 떨렸고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위원 박경장, 장세정 (정리: 장세정)

※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1명)

학년	아동명	소속	작품명
2	강소이	책키북키지역아동센터	병이없는 세상

▣ 최우수상 (3명)

학년	아동명	소속	작품명
4	강민지	참새방앗간작은도서관	마음모집
6	민수빈	밝은내지역아동센터	피곤
6	박차아	캄보디아 홈스쿨	내친구 용기

▣ 우수상 (20명)

학년	아동명	소속	작품명
1	윤수정	피네화실	정원
1	한예린	회천2동 공립지역아동센터	싸만코
2	이준우	구평남부초등학교	나비
2	정원혁	(대구)장동 초등학교	싸움
2	차민서	삼봉초등학교	코로나
3	김서준	청령포초3학년	문이 없는 세상
3	김은석	금정초등학교	내 고마운 친구
3	류지훈	청주팔레트미술학원	상상의 동물
3	박초은	사랑꿈지역아동센터	민트
3	이서아	한우리지역아동센터	내가 바라는 세상
3	조은수진	청령포초3학년	내가 고를 수 있는 아지트
4	김진후	원목초등학교	책둘레길
4	안유빈	은항지역아동센터	무서운 밤
4	이유나	밝은내지역아동센터	옷
4	이주아	이혜용독서논술	내 머릿 속 주인공
5	김도윤	안산 시곡초등학교	내겐 타임머신이 있다.
5	장동진	삼일초등학교 5학년	미아옹
6	윤예찬	김천사랑지역아동센터	좋은 말

6	이정훈	신양초등학교 6학년3반	핸드폰
6	조미경	감나무골작은학교지역아동센터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는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이다

▣ 장려상 (33명)

학년	아동명	소속	작품명
1	김고은	아이소리지역아동센터	안녕
1	김민수	보광지역아동센터	숙!
1	김지유	광문초등학교	거짓말 탐지기
1	신시온	셋별지역아동센터	놀이터
1	이랑희	꿈나무지역아동센터	미운말 없는 세상
1	이정후	범계초등학교	엄마 냄새
1	장다연	흙빛는화가	꽃을 드려요
1	하태인	방배초등학교	나비가 훨훨
1	홍서연	상명대부속초등학교	악몽
2	간은혁	목도중앙지역아동센터	무서운 누나가 없는 세상
2	김대환	베스트지역아동센터	네모
2	배가연	이혜용독서논술	우리집
2	이맑은샘	회천2동 공립지역아동센터	떨어지지 않는 내 친구
3	박서이	화실	엄마의 잔소리
3	이다연	궁내초등학교	내가 바라는 세상에는 사랑이 있다.
3	이민준	도담지역아동센터	못 생긴 나
3	전채린	창원소답초등학교	정말 싫은 사춘기
3	정영발	다원지역아동센터	학교야! 없어져라
4	김민주	효성지역아동센터	조용히
4	박소연	도담지역아동센터	내가 바라는 세상에는 우리 엄마가 있다.
4	서아름	소사성가공부방	햇빛
4	서혜림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탄이
4	장서울	대전산성초등학교	진짜와 가짜
4	장지후	이혜용독서논술	원숭이
5	강지윤	삼일초등학교 5학년	우리 강아지의 수명이 없다
5	김세은	책키북키지역아동센터	자매

5	김유빈	연지초등학교	언제든지 맑음
5	김중호	흠빛는화가	숲
5	오혜빈	행복플러스지역아동센터	통장? 텅장!
5	주아연	용인백현초등학교	나뭇잎 택시
6	김민범	서울대방초등학교	내 생각대로
6	원해린	보평초등학교	자연의 소리
6	이지연	신양초등학교 6학년3반	내가 사라지면?

▣ 특별상 (16명)

학년	아동명	소속	작품명
1	김은후	원목초등학교	아픔
3	김상우	효성지역아동센터	간식 먹기
3	김연호	도담지역아동센터	놀이터 앞 봄나무
3	차별화	광명시지역아동센터	힘든 공부
4	제정현	은항지역아동센터	해가 늦잠을 자는 세상
5	강다운	마지초등학교	히어로 우리아빠
5	강민우	도담성남동지역아동센터	무중력
5	박시현	삼일초등학교 5학년	차별없는 세상
5	송예찬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민들레
5	이선민	삼일초등학교 5학년	용돈
5	이예슬	그림자미술	담배끓고 좋은 것만
6	곽연우	새빛초등학교(용인)	바이러스 없는 세상
6	김루하	서울 대모초등학교	한숨
6	박수경	서울 창천초등학교	내가 바라는 세상
6	이소윤	신양초등학교 6학년3반	잔소리를 막아주는 우산
6	이수연	증평지역아동센터	잔소리 없는 세상